

□ 내년에도 설비투자 회복 미흡하다

1. 최근 국내 설비투자 현황

○ (설비투자 부진) 최근 국내 설비투자는 추세적, 경제 성장 단계 측면에서 부진한 것으로 분석되며, 내수 부진 속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부진이 두드러짐

- 추세적 측면 : 국내 설비투자는 80년대 후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 1986~90년 사이 평균 18.1%의 증가세를 보였던 설비투자는 불과 10년 사이 0.3%(2001~2004년)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
 - 국내 경제의 순환적 요인을 제거한 장기 추세치의 경우도 1980년대 12~14% 수준에서 90년대 후반에 들면서 2%대로 급격히 하락

< 국내 설비투자 추이 >

(단위 : %)

	1981~85	1986~90	1991~1995	1996~2000	2001~2004
설비투자 증가율	6.6	18.1	11.9	5.5	0.3
장기 추세치 증가율	12.4	12.6	7.5	2.9	2.4
설비투자 / GDP	12.2	14.1	13.5	11.5	10.0

자료 : 한국은행.

주 : 장기 추세치는 HP필터(Hodrick-Prescott filter)를 사용하여 1970년 이후 설비투자(실질) 추이를 추정된 값이고, 설비투자 실적치 및 장기 추세치는 기간 평균 증가율임.

- 경제 성장 단계 측면 : 최근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은 선진국들이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 진입 시기에 기록한 설비투자 증가율 수준에 크게 못 미침
 -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가는 동안 일본과 싱가포르는 8~10%의 설비투자 증가율을 기록
 - 반면 1995년 1만 달러에 진입한 우리 나라의 경우 설비투자 증가율이 2.7%에 머물고 있음

< 주요국의 경제 성장 단계별(1만 달러→2만 달러) 설비투자 추이 비교 >

(단위 : %)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싱가폴	한국
경제 성장률	3.2	2.4	2.3	3.4	9.3	5.5
설비투자 증가율	4.8	4.5	4.1	8.8	10.8	2.7
1인당 국민소득 : 1만 달러→2만 달러	10년 (78→88)	9년 (87→96)	11년 (79→90)	6년 (81→87)	5년 (89→94)	? (95→?)

자료 : 한국은행, '최근 설비투자 동향과 특징', 2003.

주 : 한국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1996~2004년 기간 평균임.

- 구조적 측면 : 최근 국내 설비투자는 중소기업의 상대적 투자 부진, 내외수 기업의 투자 양극화, 유지 보수 부문 투자 비중 증대 등의 특징을 보임
 -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감소세가 대기업에 비해 두드러졌는데, 이는 고유가, 인건비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임
 - 2003~2004년 사이 내외수 부문 양극화로 수출 기업들과 내수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큰 격차를 보임
 - 향후 경기 회복 기대가 약화되면서 기업들이 설비 능력 확대보다는 기존 설비의 유지 보수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이고 있음

< 최근 국내 기업의 설비투자 구조 >

(단위 : %)

			2003	2004	2005(계획)
기업 규모별	제조업	대기업	33.8	37.0	15.7
		중소기업	10.9	4.7	- 11.0
업종별	제조업	전체	24.8	43.2	13.9
		수출기업	50.2	64.3	10.6
		내수기업	- 7.1	0.3	24.9
	비제조업		- 3.4	8.5	15.4
투자 동기별	설비능력	전체	36.7	58.6	9.1
		신제품 생산	44.3	79.7	19.3
		설비 확장	32.8	46.8	2.2
	합리화	전체	5.9	40.2	16.4
		유지보수	9.3	43.7	17.5
		자동화	2.6	12.9	10.0
		에너지 절약	- 28.4	63.3	13.6
	연구개발		9.3	-8.5	53.2

자료 : 산업은행, 「2005년 설비투자 계획」, 2005.

주 : 모든 수치는 전년대비 증가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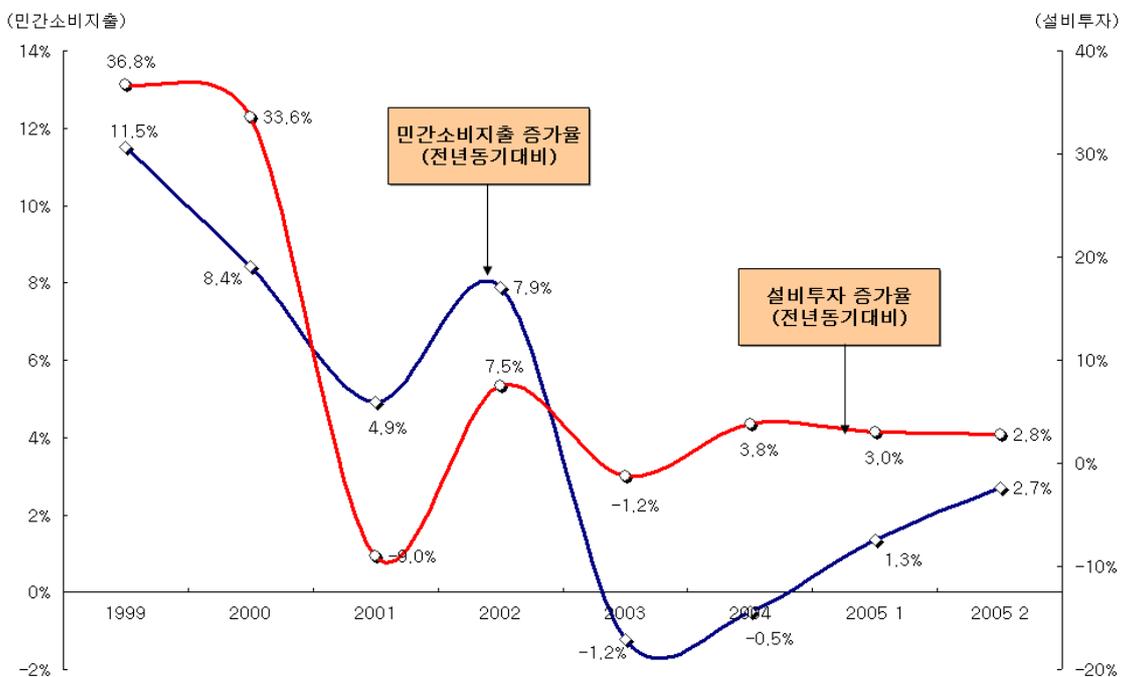
2. 최근 설비투자 부진의 원인

○ (원인) 내수 경기 침체 지속, 향후 경기 판단에 대한 불확실성, 산업 시설의 해외 이전 활성화, 단기 실적 중심의 경영 확산 등이 최근 국내 설비투자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됨

- 내수 경기 침체 지속에 따른 투자 위축 : 2000년 이후 내수 경기가 하강 국면을 보이면서 설비투자 부진이 지속

- 1999~2000년 30%를 상회하던 설비투자 증가율은 민간소비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2005년 2/4분기에는 3%에도 못 미치고 있음
- 실제로 국내 기업들은 국내 수요 부진(38%)과 그에 따른 수익성 저하(12%)를 설비투자를 가로 막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함¹⁾
- 한편 최근 국내 설비투자 추이가 경기 동행적 성향이 강해 내수 경기 회복을 선도하는 선제적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내수 경기 침체가 설비 위축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함

< 소비 침체와 설비투자 >



자료 : 한국은행.

1) 산업은행, 「2005년 설비투자 계획」, 2005.

- 향후 경기 판단에 대한 불확실성 :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가계 부채 부담에 따른 소비 회복 지연 등이 기업의 설비투자 부진을 부추김
 - 산업은행은 국제 유가가 20% 상승시 설비투자 증가율이 0.2%p 감소, 민간 소비 증가율은 0.3%p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함 (두바이油 05.9.27 56.8달러로 현재 연초의 33.1달러 대비 71.6% 상승)
 - 실제로 2005년 초 경기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다가 지난 2월 이후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다시 위축됨 (한은 BSI : 2005년 4월 91→ 8월 78, 14.3% 하락)

< 투자 심리 지표 추이 >

(전년 동월, 동기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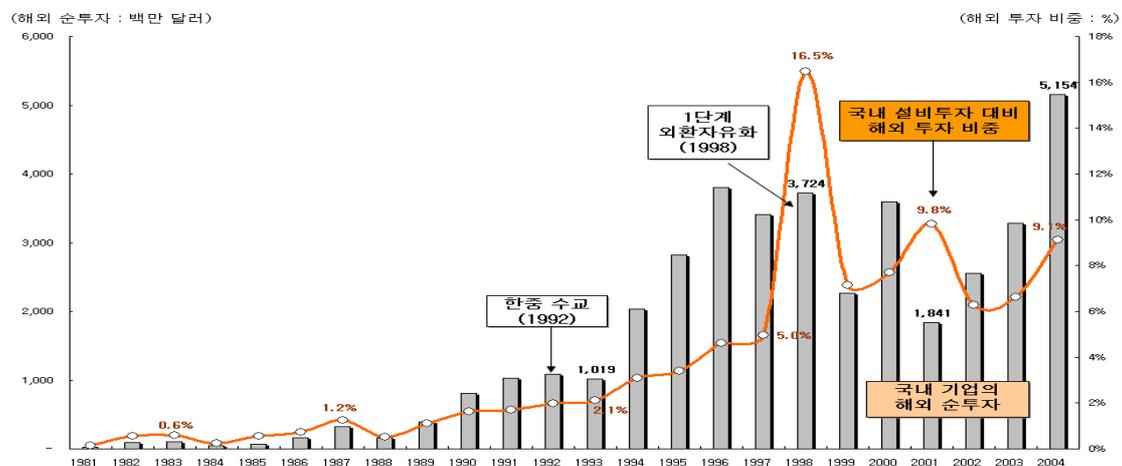
구분	2005년					
	1월	4월	5월	6월	7월	8월
한은 BSI(전망)	74	91	91	84	82	78
전경련 BSI(전망)	77.8	117.6	114.1	105.1	96.5	91.7
중기협 BSI(전망)	75.1	96.6	96.7	89.5	84.1	80.5

자료 : 통계청, 산업자원부.

주 : 2005년 6월,7월은 전망치임.

- 산업 공동화 현상 : 국내 기업들이 韓中 수교, 외환 자유화, 저렴한 노동력 확보 필요성 증대 등으로 해외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국내 투자 여력이 약화
 - 총 규모 : 韓中 수교 직후인 1993년 10.2억 달러 수준이던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는 2004년 51.5억 달러로 5배 가량 급증

<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 추이 >



자료 : 수출입은행.

< 국내 제조업체들의 공장 해외 이전 사유 (2003) >

(단위 : %)

비용절감	노동력 확보	해외시장 확보	노사문제, 규제 등	현지기업과의 제휴	기타
28.6	20.9	17.9	10.3	6.6	15.7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지역별** : 중국 경제의 고성장으로 총 해외 투자 중 對중국 투자 비중이 수교 이전인 1990년 2%에서 2004년 38.9%로 크게 증가
- **업종별** : 2000년 이후 비용 절감, 저가 노동력 확보 등을 위해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설비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

< 지역별/업종별 해외 투자 비중 추이 >

(단위 : %)

		1990	1995	2000	2002	2004
지역별	중국	2.0	29.3	9.9	33.7	38.9
	아시아 (중국 포함)	35.4	56.8	23.2	52.0	55.7
	북미	51.2	16.1	34.7	18.2	23.6
	유럽	7.3	21.2	-	21.2	11.8
	기타	6.1	5.9	42.1	8.6	8.9
업종별	제조업	57.1	67.6	26.6	50.1	57.4
	비제조업	42.9	32.4	73.4	49.9	42.6

자료 : 수출입은행.

- **기업 규모별** : 최근에 들어 중소기업의 해외 투자 증가세가 대기업에 비해 두드러지고 있으며 특히 對중국 투자 비중이 크게 증가

< 기업 규모별 제조업의 해외 투자 현황 >

(단위 : %)

기간	중소기업			대기업		
	전체	對중국	對중국 비중	전체	對중국	對중국 비중
1990~99	249	123	49.5	879	195	22.2
2000~04	848	632	74.5	1018	261	25.7
	(241%)	(414%)	(25.0%p)	(16%)	(34%)	3.5%p

자료 : 임경목, '설비투자 추이 분석 및 시사점', KDI, 2005.

주 : 모든 수치는 기간 평균 수치이며, ()는 1990~99년 기간 대비 2000~04년 기간 증가율 및 증가폭임.

- 단기 경영 성과 위주 경영 확산 : 외국인의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의 증가로 배당 인상 요구, 경영권 위협 등이 빈번해지면서 기업들이 장기성 투자 보다는 현금 유동성 확보, 배당 증가에 투자 여력을 소진
 - 2000년 이후 기업의 수익성(매출액 순이익률 및 당기순이익)이 개선되고 있으나 배당, 현금 유동성 확보, 재무 구조 개선 등에 자원이 투입됨
 - 특히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 증가²⁾로 주주 중심 경영이 확산되면서 2000년에 5%수준에 머물던 배당률이 2004년에 1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함

< 제조업의 주요 경영 지표 >

	2000	2001	2002	2003	2004
매출액 순이익률 (%)	-1.4	0.2	3.5	4.3	5.8
당기순이익 (조 원)	-7.4	0.8	19.3	27.5	43.4
현금성 자산 (조 원)	48.9	45.6	56.8	69.5	75.5
부채비율	185.8	167.6	127.3	117.8	107.4
배당률	5.16	4.90	5.38	8.30	10.24

자료 : 산업은행, 「2004년 기업재무분석」, 2005.5.

3. 설비투자 전망

- (2006년 전망) 최근 투자 선행 지표가 개선되고 있어 2006년 설비투자는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되나, 기업들의 경기 기대감이 경색되고 있어 증가세는 소폭에 그칠 전망
- 설비투자 회복 기대감 증대 : 설비투자 관련 선행 지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설비투자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음
 - 제조업 설비투자 조정압력 증가 : 반면 제조업 설비투자 조정압력은 2005년 1/4분기 0.2%p에서 2/4분기(전망치) 1.7%p 상승하였으며, 특히 5, 6월(전망치) 1.9%p에서 7월(전망치) 5.5%p로 급상승함
 - 국내 기계 수주 증가 : 2005년 1/4분기에 이어 2/4분기(전망치) 예도 약화되었던 국내 기계 수주 증가율이 7월 들어 25.5%의 증가율을 보임
 - 국내 기업들의 대규모 설비투자 계획 : SK(주) 3조 2,000억 원(인천정유 투자), S-Oil 2조 원 가량(국내 최대 규모의 정유 공장 건설 추진), KT 10조 4천 억 원(통신 인프라 설비 및 신규 사업 투자, 2006~2010년) 등 국내 기업들의 대규모 설비투자 계획 발표가 이어지고 있음

2) 10대 그룹의 외국인 주식 보유 비중은 1998년 30.2%에서 2004년 50.8%로 급증함.

- 실물 동행 지표와 설비투자 관련 선행 지표 사이에 괴리는 있으나, 기업들의 대형 설비투자 계획 발표가 이어지는 등 전체 설비투자가 회복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됨

< 설비투자 관련 선행 지표 추이 >

(전년 동월, 동기 대비, %)

구분	2004년	2005년				
		1/4	2/4	5월	6월	7월
제조업 설비투자 조정압력(%p)	5.6	0.2	1.7	1.9	1.9	5.5
제조업 평균 가동률	80.3	80.0	79.0	78.0	80.1	80.5
국내 기계 수주(선박 제외)	6.8	-6.8	-12.2	-14.4	-12.2	25.5

자료 : 통계청, 산업자원부.

주 : 2005년 2/4분기, 6월,7월은 전망치임.

- 투자 심리 지표 약화 : 한국은행 등 3개 기관의 BIS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어 기업들의 경기회복 기대감은 계속 약화되고 있어 설비투자는 회복되더라도 소폭에 그칠 전망이다
 - 新3高 현상 또한 기업들의 체감경기 악화 : 대한상의에 의하면 BSI 전망치 또한 2005년 2/4분기 111, 3/4분기 107, 4/4분기 100으로 하락세
 - 이는 최근의 유가폭등과 원화강세 지속 및 금리인상 압력 등 이른바 新3高 현상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
 - 따라서 기업들의 경기회복 기대감의 약화에 의해 2006년 설비투자는 회복세를 보이더라도 소폭 개선에 그칠 것임
- 2006년 전망 : 2006년 설비투자는 전년대비 5.5% 성장한 81.9조 원 수준으로 예상
 - 외환위기 이전 1991~95년의 연평균 설비투자 증가율 11.85% 및 일본, 싱가포르 등이 1인당 국민 소득 2만 달러 달성한 시기에 기록한 설비투자 증가율 8~10%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임

< 설비투자 전망 >

	2004	2005		2006 (E)
		상반기	연간 (E)	
설비투자 증가율 (%)	3.8	3.0	4.3	5.5
설비투자액 (조원)	74.4	-	77.6	81.9
GDP 대비 비중 (%)	9.6	-	9.6	9.7

자료 : 한국은행.

주 : 설비투자액은 국민계정상 설비투자액(실질)이며, 경제성장률(실질) 및 설비투자 증가율은 현대경제연구원의 2005년 및 2006년 전망치를 사용함.

4. 설비투자 부진의 영향과 과제

○ (설비투자 부진의 영향) 외환 위기 이후 설비투자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 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크게 약화

- 추세적 측면 : 70년대 이후 외환위기 이전까지 경제 성장을 견인하던 설비 투자가 최근에 들어 경제 성장률 하락을 주도함

- 외환위기 이전까지 경제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던 설비투자 증가율이 2000년대 들어 1%대로 급락하고, 경제 성장률도 3~4%p 하락함
- 특히 민간 소비도 2000년대 들어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4%p 가량 증가세가 둔화되었는데 설비투자 부진으로 고용이 감소되면서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함

< 경제 성장률, 설비투자, 민간소비 성장률 추이 >

(단위 : %, %p)

	70년대	80년대	외환위기 이전 (1991~1995)	외환위기 이후 (2001~2005)
설비투자	25.6	8.5	11.9	1.1
민간소비지출	7.0	7.0	7.8	2.7
실질 GDP	8.5	7.7	7.8	4.5

자료 : 한국은행.

주 : 모든 수치는 기간 평균 수치임.

- 향후 설비투자 증가율이 외환위기 이전 수준에 근접하지 못할 경우 경제 성장률이 0.64%p 감소할 것으로 분석

- 가정 : 향후 국내 경제의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 수준을 외환위기 이전 수준인 10%, 2006년 이후 설비투자 증가율을 5%로 가정함
- 추정 결과 : 설비투자 감소액 3조 5천억 원, 소비 감소 효과 1조 3천억 원, 고용 감소 5만 4천명으로, 2006년 GDP 대비 0.64%p에 해당하는 4조 8천억 원 가량의 국내총생산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2006년 금액 기준)

< 설비투자 부진에 따른 경제 성장률 감소 효과 >

구 분	금액	경제 성장률 증감 효과	
직접적 효과 (설비투자 감소액)	3조 4,925 억원	0.64%p (4조 7,975억원/ 754조 3,233억원)	
간접적 효과	소비 감소		1조 3,050 억원
	고용 감소		53,784명
합계	4조 7,975 억원		

○ (정책 과제) 새로운 산업 부문의 선별적이고 집중적인 육성을 통한 신성장동력 마련이 시급하며, 산업 구조조정 및 지원을 통해 기존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해야 함

① 신산업 부문의 선별적 집중 육성

- 최근 국내 산업 구조가 대규모 설비투자를 수반하는 조선, 철강 등의 전통 제조업이 성숙기에 접어들어 기존 산업에서 대규모 설비투자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움
- 따라서 단기간에 신기술의 사업화 및 신산업화를 달성하고 이를 신성장동력화하기 위해서는 BT, NT 등 전략 핵심 신기술 분야에 대한 정부의 선별적 집중 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기업 투자를 촉진시켜야 할 것임

② 기존 산업의 경쟁력 강화

- 기존 산업분야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기술도입, 산학연 공조 등을 위한 지원 정책 강화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적극 유도함
-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업의 IT 도입 및 신기술 자동화 설비투자, 교육훈련 등의 투자활동에 대한 강력한 지원책 추진이 필요함

③ 기업의 투자 환경 개선

- 우리 경제는 점차 물적 투입 보다는 생산성 향상의 경제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물적 투자가 수반되지 않고는 생산성 향상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육성 대상 신산업 분야에 대한 기업의 투자 및 참여 유도를 위한 적극적인 규제 완화, 세 부담 완화 등과 같은 기업의 투자 환경을 시급히 개선해야 함
 - 최근 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이 약화되면서 성장성이 높지만 리스크가 큰 부문으로 기업이 단독으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기 어려움
 - 따라서 대기업의 지배 구조 문제는 시장 기능(집단소송제 등)에 맡기고 기업 투자를 제약하는 출자총액제한 제도와 같은 규제를 과감히 완화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최근 정부 여당이 법인세 인상을 논의하고 있는데, 법인세가 인상될 경우 기업의 투자 여건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황동원 연구원 (3669-4011, dhwang@hri.co.kr)